



우치공원-전남대 수의대·동물병원, 협약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전남대학교동물병원은 지난 21일 오후 전남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복지 향상 및 수의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세 기관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과 수의학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우치동물원 동물의 질병진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전문 의료 자문 제공 및 의료장비, 진료기술 지원과 정보 교류 △중 보전, 질병 등 수의학 관련 공동연구 수행 △수의학 교육과 실습 기회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우치공원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실험실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동물의 질병 연구와 중 보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의 전문의료 자문과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동물의 전문 진료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범 기자**



북부소방, 현장안전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18일 현장안전담당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심리 상담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상담은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팀장 등 현장안전담당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심리 상담 전문가의 지도로 진행됐다.

이은경 수석 심리상담사는 “이번 상담은 LCSI 자기평가, 진솔하게 말하기, 공감대 형성 등의 활동으로 이뤄진다”며 “집단심리 상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이종주 북부소방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기회로 소방공무원 간 심리적 이해도를 향상시켜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나주소방 의용소방대, 드론 활용 산불 감시

나주소방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의용소방대 드론 감시단이 나주 관내 임야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감시는 봄철 산불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영농철을 맞아 농부산물 소각이 급증함에 따라 임야 화재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드론을 활용해 임야 및 농경지 주변을 상공에서 촬영·관측하며, 불법 소각이나 연기 발생이 감지되면 즉시 관할 119안전센터에 통보해 신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드론감시단은 산불조심 기간인 5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항식 나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첨단 장비 기반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기독병원-광주시사회서비스원, 협약

광주기독병원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1일, 광주기독병원 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와 공공돌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22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지역돌봄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필수보건의료 및 공공돌봄 협력사업 수행(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차의료돌봄협력사업, 긴급돌봄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보건의료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석 광주기독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기독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재향소방동우회, 산불 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은 지난 20일 광주재향소방동우회원 20여 명이 무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산불 예방 홍보와 함께 안전 산행을 위한 지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홍보 물품 배부, 등산로 주변 환경 정화 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박만환 광주재향소방동우회장은 “최근 기록적인 대형 산불을 겪은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활동에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재향소방동우회는 지난 2002년 설립된 퇴직 소방관 단체로, 2021년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현재 130명의 회원이 화재 예방 캠페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봉사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준명 기자**



무안경찰, ‘아동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

무안경찰은 지난 21일 남악 센트레빌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동을 대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문 등 사전등록은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사진, 신체 특징 등을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된 정보는 실종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조기 발견에 활용된다. 해당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치매 환자나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도 시행된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문 사전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디자인진흥원-천연염색박물관, 공예산업 활성화 협약

서남권역 디자인 및 공예산업 진흥 기관인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천연염색산업 연구기관인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지난 21일 광주디자인진흥원 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문화예술과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디자인 및 전통문화분야 연구개발 및 제작 등을 위한 협업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공유 △각 기관의 사업의 상호 홍보 및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류의 첫 걸음이 될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한국천연

염색박물관은 기 개발된 우수공예문화상품을 상호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오는 8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호남지역 최대규모의 공예 박람회인 ‘제14회 빛고을핸드메이드페어’에서도 우수한 공예상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또 상호 간 학술행사와 심포지엄 등에서 인적·물적으로 상호 협력해 양 기관이 축적한 그간의 연구 성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모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협력해 그 동안의 성과를 집성하고 공예의 잠재력이 확장되길 바란다”며 “오랜 시간 디자인/공예 분야와 전통문화 분야에 앞장서 온 두 기관이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 나아감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예문화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다운 기자**



광주 동부경찰·방법대, 계림동 야간 합동순찰 실시

광주 동부경찰 금남지구대는 지난 21일 계림1동 자율방법대와 함께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날 순찰은 계림동 일대의 가로등 점등 여부와 방법 CCTV 등 주요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주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순찰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역 치안 현황을 공유하고, 정기적인 합동순찰을 통해 민·경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동부경찰범죄예방진단팀(CPO) 관계자는 “계림1동 일대는 노후 주택과 원룸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이라며 “동구의 지원사업과 연계한 환경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방법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체감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구, 세큰대 워킹 수업 ‘호응’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2일 서구 청소년꿈누리센터에서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의 정규강좌인 바른자세모델워킹 수강생들과 함께 모델 워킹을 배우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